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22.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1-8).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24장

대표기도 / (1부) 윤진태 안수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15:20~32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아버지의 마음, 천국 잔치” / 전종남 목사

(The Father's Heart, the Heavenly Feast)

찬 송 / 505장

교회소식 / 인도자

전도구호 / “한 사람이 세 사람이상, 전도해서 살리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88장, 251장

기 도 / 유병용 집사

성경봉독 / 레위기 7:22~38

찬 양 / 호산나찬양대

말 씬 /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과 성도의 분깃”

(A Life Set Apart by God, and the Portion for the Saints)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를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00장, 204장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4:1~8

말 씬 /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과 사명” / 전종남 목사

(Fath to Keep, and Mission to Finish to the End)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예레미야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5월	1부	2부
이기숙 집사	이상혁 장로	이동순 권사	안내	김신영	이대기 박선진 최인숙
			헌금	김춘자	임진수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성태(김득복) 김영화 김춘예 김춘자 남정옥 노상현(이정숙)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 최영종(전숙희)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성태(김득복) 김순천(연윤희) 김호열(김도형) 남정옥 노상현(이정숙) 문상필 심상현 유병용(황하민) 유진원(유예원) 윤결태(김연주)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근순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남정옥 이상혁(송미숙) 윤결태(김연주) 최환철(이동순) 2여
구제헌금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최환철(이동순) *구역헌금: 1, 4, 5, 10구역
교육헌금	김순천(연윤희) 김춘자 윤결태(김연주)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와서 보라. (요1:43~51)

전 종 남 목사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한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어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43~44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다’의 헬라어 ‘휴리스케이’는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胎信者)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2.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45절).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지를 만났다고 알렸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맛 집을 발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전도는 시작됩니다.

3.“와서 보라”고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46~48절).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 앞에서, 빌립은 논쟁을 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Come and See)!”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편견의 벽을 깨뜨릴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모든 의심이 무너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임금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생명축제>(6/14)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고해 보이는 이웃도,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번 주간에, 작은 선물과 초대장을 들고 장기 결석자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갑시다. 빌립처럼 손을 내밀며, “와서 보라.”고 초청합시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